공짜 내세운 '황의 꼼수'

metro

손흥민 4경기째 무득점

지난 9일 제주국제공항 보세구역 안에 있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 바로 옆에 세워진 구찌의 광고판 앞을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illegible]

"제주여행객은 호구" JDC면세점

일부 인기 상품, 해외 직구·쇼핑몰보다 최대 두배 이상 비싸

제주도내 내국인 전용 면세점인 JDC면세점의 주요 인기 상품의 판매 가격이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통한 온라인 쇼핑몰보다 높게 책정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DC면세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이사장 김한욱)가 운영하며 수익금은 제주도 개발 사업에 쓰인다. 공기업 성격을 띠는 면세점이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에도 주요 인기 판매 상품의 가격을 직구 상품보다 높게 책정하며 내국인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JDC인터넷면세점의 품목별 판매 1~2위 상품의 가격을 주요 온라인 쇼핑몰 판매 가격과 비교한 결과 JDC면세점 상품의 가격이 모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대행스트 상에서 화장품 판매 1위에 랭크된 수입 화장품인 '키엘 울트라 페이셜 크림 125ml'의 면세점 판매 가격은 61 달러에서 10% 할인이 적용된 54.9 달러(6만9650원)에 판매중이다. 이 상품은 옥션에선 5만4460원, 11번가에선 5만796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화장품 판매 2위인 '디올 립글로우'의 면세점 판매 가격은 30 달러(3만2590원). 같은 상품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는 최대 1만원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옥션 2만860원, G마켓 2만3700원, 11번가 2만4900원, 티몬 2만9900원 등이다.

향수 판매 1위에 랭크된 '불가리 옴니아 아메시스트 65ml' 가격은 최대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면세점 판매가는 78 달러(8만4750원). 11번가와 G마켓 특가판을 통해선 각각 2만6000원, 3만3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의 인터넷쇼핑몰에서도 각각 8만790원, 8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계 판매 1위인 여성용 메탈 시계 '마크바이제이콥스 MBM3198' 가격도 최대 5만원 가량 차이났다. JDC면세점 판매가는 206달러에서 10% 할인된 185.4 달러(20만1450원). 11번가 판매가는 14만9000원이다. 롯데백화점 인터넷쇼핑몰 판매 가격도 27만원에서 26% 할인된 19만8500원으로 JDC면세점보다 저렴했다.

잡화 판매 1위인 쿠이까또즈 숄더백(HG1N16FA0TA)은 3만원 가량 가격 차이가 났다. JDC면세점 판매가는 35만5300원에서 10% 할인된 31만9770원. 롯데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판매가는 48만8000원에서 40% 할인된 29만4000원이다.

면세점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돼 일반 매장보다 20~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 직구 상품은 15만 원까지, 미국발 상품은 한미 FTA에 따라 200 달러까지 관세를 물지 않는다. 쿠이까또즈 숄더백 직구 상품이 관세를 내는 것을 감안하면 같은 JDC면세점 상품의 가격이 훨씬 비싼 셈이다.

한편 JDC가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운영 중인 내국인 면세점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3666억원, 영업이익은 1081억원. 전년 대비 각각 6.3%, 9.3% 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화장품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38.7%에 달했다. 이어 패션잡화(15.4%), 주류(11.9%), 담배(7.3%), 향수(6.4%) 순이었다. 올해는 매출 4345억원, 영업이익 1300억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JDC면세점의 수익금은 제주도 개발을 위해 쓰게 돼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외국인도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illegible] 기자 green@metroseoul.co.kr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드 사봤자… 북한 SLBM 위협에 속수무책

사드 포대 한두대는 '헛돈' 쓰는 꼴… 천문학적 비용에 다수 도입도 '비현실적'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방어수단으로 떠올랐던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마저 무력화될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9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극성-1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초기개발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이 SLBM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실전배치할 경우 사드의 레이더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북쪽의 육상은 물론이고 서해·동해·남해 등 전 방위를 감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사드를 도입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다.

10일 레이더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도입을 추진하는 사드의 탐지레이더는 지상 설치 레이더다.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에 대응하기 위한 레이더가 아니다. 또 사드의 탐지레이더인 ANTPY-2는 엑스밴드라고 불리는 아주 파장이 짧은 레이더로 아주 작은 물체까지 미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요격용이라 설치된 포대 앞만 탐지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어느 한 방향으로 레이더를 고정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 방위를 다 감시하기 위해서는 각 방위마다 따로 설치해야 한다. 사드 포대 하나를 도입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드 포대를 몇 대나 도입해야 하는지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와 관련해 공군 출신의 한 레이더 전문가는 "레이더의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해도 사드 레이더의 한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레이더 안테나의 성능은 안테나가 에너지를 어느 각도로 집중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각도를 좁힐수록 탐지성능이 향상된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각도를 키울수록 탄도미사일 방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 포대 수를 줄이는 모험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드 포대의 천문학적인 액수를 생각하면 사실상 사드 배치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현재 사드의 1개 포대 가격은 약 1조5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예산 문제로 사드 포대 한두 대를 도입해서는 헛돈을 쓰는 꼴이다.

미군이 사드 포대를 도입한다면 한국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 보통 한국과 주한미군 사이의 무기구입은 먼저 요구하는 쪽이 비용을 부담해왔다. 예외적으로 미군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북한의 SLBM 방어에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국방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2020년 초반을 목표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나섰지만 사드와 마찬가지 단점이 존재한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은 북한의 SLBM 위협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윤정원기자 yoonsl@metroseoul.co.kr

북한은 지난 9일 전략잠수함의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완성된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신문이 공개한 탄도탄의 모습. 붉은색 커다란 글씨로 '북극성-1'이라고 적혀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탄도탄을 KN-11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日, 中 앞마당 '남중국해' 진출

일본이 중국의 앞마당인 남중국해를 넘보기 시작했다. 오는 12일 필리핀과 사상 첫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대중국 해양봉쇄를 겨냥한 미·일 신동맹의 결과다. 중국과 필리핀과의 해양 분쟁에서 이젠까지는 미국만이 나섰다.

1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과 필리핀 양국 해군은 12일 필리핀 마닐라만과 수빅만 사이 남중국해에서 돌발상황에 대비한 공조체계 구축 훈련을 실시한다. 일본 구축함 2척, 필리핀 프리깃함 1척과 헬리콥터 등이 참가한다.

앞서 지난 6월 양국의 해경은 필리핀 해안에서 해적 퇴치와 무기밀매, 인신매매 단속 등을 위한 첫 합동훈련을 벌였다. 오는 14일에는 수색과 구조를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훈련은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해양봉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지난 4월 필리핀과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을 실시, 대중국 봉쇄를 노골화했다.

중국은 2010년 3월 미국정부에게 남중국해가 영토의 완정성(完整性)에 직결되는 '핵심이익'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중국에게 핵심지역이란 국가의 존망과 직결돼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다. 대만·티베트,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이 대표적이다. /송병형기자

러시아 2차대전 전승절 참가한 시진핑 '돈잔치'

미국, 유럽, 일본 정상이 러시아 2차대전 승전 70주년 행사에 불참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생긴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았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대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역 경제협력 구상에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는 현재 구소련권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이끌고 있고 중국은 유럽-아시아를 잇는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추진 중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경제협력 관련 합의들이 이뤄졌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수백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서부노선' 가스 공급 계약이다.

양국의 국영에너지 회사인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은 이날 두 정상의 승인을 거쳐 '서부노선'을 통한 대중 가스공급 프로젝트의 기본조건에 합의했다.

시 주석은 또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중부 도시 카잔을 잇는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1조 루블(약21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중국도 이번 회담으로 챙긴 것이 적지 않다는 해석이 많다. 우선 동중국해·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일본·필리핀 등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중·러 관계의 격상을 통해 반격용 포석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시 주석의 최고 관심사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과의 이번 만남은 또 하나의 '자원외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윤아기자 yoona@

서울역고가 인조잔디 위 봄소풍 서울역고가 시민개방행사가 열린 10일 서울 만리재에서 염천교로 이어지는 서울역고가 위 400m 램프 구간에 인조잔디와 노란 파라솔이 설치돼 시민들이 봄소풍을 즐기며 고가를 오가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고가 개방행사를 반대하는 인근 남대문 상인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연합뉴스

연말정산 환급법 오늘 넘기면 직장인 난리난다

통과하면 회사가 대신 재정산… 못하면 개인별 '벼락치기 환급 준비' 대란

연말정산 환급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직장인 사회에 난리가 날 판이다. 직장인 개개인이 벼락치기 환급 준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환급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는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를 의결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이 법이 1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여 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에게 약속했던 5월 중 세액 환급을 못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이날 '연말정산 보완대책 지연 통과시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대부분 회사의 급여 지급일(25일)부터 역산할 때 최소한 11일 이전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로 연말정산 재정산을 맡는 기업이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입양공제와 관련된 신청서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 재정산 결과를 근로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작업도 거쳐야 한다. 각 직장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이를 근로자 각각의 월급 내역에 반영하게 된다. 대부분의 회사는 25일에 월급을 지급한다. 올해는 석가탄신일(25일) 연휴가 끼어 22일에 월급 지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

더 큰 문제는 11일 개정안 통과가 지연돼 물리적으로 재정산을 할 수 없게 됐을 때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이달 말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회사는 연말재정산을 할 수 없다.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본인의 환급계좌 정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김서이기자 rerisun217@metroseoul.co.kr

연말정산 보완책 주요내용

	종전 (소득공제)	현행 (세액공제)	보완대책 (세액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1명: 없음 2명: 100만원 3명 이상: 1명당 200만원	자녀세액공제 제도로 통합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1명: 현행 유지 2명: 현행 유지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10만원 추가)
6세 이하 자녀공제	100만원		2명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출산·입양	자녀당 200만원		자녀당 30만원 신설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 (4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5%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모든 근로자 50만원(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 66만원 7,000만원 이하: 63만원 7,000만원 초과: 50만원	3,300만원 이하: 74만원 4,300만원 이하: 66~74만원 5,500만원 이하: 66만원 7,000만원 이하: 63만원 7,000만원 초과: 5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율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30%

자료 : 기획재정부 / 연합뉴스

대화하는 유승민과 이종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이종걸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첫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두 사람은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를 존중한다며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靑 "소득대체율 50%는 1700조원 세금폭탄"

"세금폭탄 아니라면 보험료 1인당 255만원 더 내야"

청와대가 5월국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며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도 가중시키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국민과 함께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10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5월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 브리핑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논의조차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세금폭탄을 피하고자 할 경우 "2016년 한해에만 34조5000억원,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1% 인상만으로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가능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김 수석은 이 같은 반박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우선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오랫동안 가입해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장기체납자나 미가입자로 인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은 먼저 공무원연금 해결이 우선이라며 "5월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말정산 보완 법안과 누리과정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함께 당부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박지만 회장에게 유서 남기고 노조간부 자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의 계열사 노조간부가 박 회장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유서에는 박 회장에게 노조를 탄압하는 경영 방식을 바꿀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 /연합뉴스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지그룹 계열사인 이지테크의 양우권(50) 노조 분회장이 이날 아침 광양시 자택 인근 공원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양 분회장은 목을 매기 전 양동운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변을 비관한 자살로 추정되는 이유다.

이지테크는 포스코 협력업체다. 애초 노조 조합원이 50명가량이었지만 현재는 양 분회장만 남은 상황이다. 양 분회장은 2011년 4월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후 재판에서 승소해 지난해 5월 복직했지만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 분회장은 A4용지 3장 반 분량의 유서에서 박 회장에게 노조 탄압 중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병형기자

Incheon Airport Customs Uncovers Drugs – 'Record Breaking Amount'

A record amount of drugs have been mailed to South Korea during the first three months of this year due to the brisk us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by dealers, customs authorities said Thursday. There were nearly 70 different kinds of drugs worth a total 4.6 billion won ($4.2 million), an official of the service said. Between January and March of 2015, some 3.6 tons of drugs entered South Korea by mail, an astronomical figure compared to 5.4 kilograms logged in the same period last year, the Korea Customs Service said. The most common drug was Khat, a leafy green plant containing stimulants that is cultivated in North Africa and the Arabian Peninsula. The people who brought it in were a 35-year-old Ethiopian woman and a 36-year-old American man. They thought that it would be easier to bring in the drugs through Korea Customs because of its strict conditions.

시사영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종관) 강사

인천공항세관 1분기 마약 적발 "역대 최대"

국제우편과 특송 등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2015년 1분기 동안 화물을 이용해 밀반입된 시가 46억원 상당의 마약류 69종 3.6t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게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마약적발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식물성 마약 '카트'(Khat)다.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등에서 주로 생산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3월 국내로 밀반입된 시가 22억원 상당의 카트 3.6t을 압수했다. 국민 3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범인은 에티오피아 국적 A(35·여)씨와 미국인 B(36)씨다. 이들은 카트 잎을 분산에 사용하는 식물인 것처럼 위장해 한국으로 들여온 뒤 미국으로 밀수출하려 했다. 이들은 한국을 거치면 미국 반입이 쉬울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 세관 검색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골목길상권 투자, 출구전략이 중요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요즘 상가나 건물을 사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는 곳이 있다.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골목길상권이다. 젊은 소비층이 몰리고 유행과 이슈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보니 근린상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투자자에게도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소위 뜨기 시작하는 골목길 상권의 점포나 소규모 건물을 투자할 때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유명 대형 상권에 비해 투자부담이 적은 대신 매각차익이나 임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골목길 상권은 강남대로나 명동 같은 대형 상권에 밀리지 않고 있다는 자부심보다 실속을 챙기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하지만 유행에 민감한 골목길 상권에 투자할 때는 진입전략(Entry Strategy)과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잘 세워야 한다. 이른바 뜨는 골목길 상권 만도 서울 시내에 20~30곳 가량 꼽히고, 인기 있는 골목길 상권에 뜨고 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골목길 상권인 신사동 가로수길이 시들해지는데 10년 정도 걸렸다면 최근 인기 있는 이태원 경리단길에 대한 과열 우려가 나오는 데는 채 3~4년도 걸리지 않았다.

확실한 매각 차익을 내려면 상권이 자리잡기 전에 진입해야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근린상가를 골목 점포 임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상권에 어울릴 만한 업종을 고려해서 주목 받을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해야 임대하기 좋고 투자금 회수도 빨라진다.

골목길 상권은 주로 도시 재생 과정에서 특정 골목길을 중심으로 형성되다 보니 상권의 규모가 작은 편이다. 상권이 유명해지고 외부 투자자가 유입되면 금방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임대료 또한 급등한다. 다소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점포나 건물의 투자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하기도 한다.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올리게 되면 임차인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진다. 임대료가 급등하면 해당 상권의 투자 과열을 의심해봐야 한다.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가 입점하기 시작하면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골목길 상권이 뜨기 시작할 때는 단독주택을 개조한 아기자기한 음식점과 차별화된 인테리어의 카페들이 들어서고 새로운 패션과 문화 아이템을 선보이는 디자이너숍 같은 가게들이 자리를 잡는다. 누구나 알 만한 프랜차이즈 점포가 대거 입점했다는 건 상권이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고 해당 상권의 미래 성장가치에 대해서 따져보기 시작해야 한다.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도 비슷한 징후다.

입지가 양호한 골목길 상권은 인기가 시들해진 뒤에도 고정 소비층을 유지하기도 하고 한번 시들해졌던 상권이 종전과 다른 콘셉트의 점포 개발로 다시 주목 받기도 한다. 하지만 매각차익과 임대수입을 고려한 골목길 상권 투자를 원한다면 뜨는 골목길 상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잘 결정해야 한다.

이재용의 삼성, 지주사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기자 수첩
송정훈 <산업부 기자>

삼성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체제가 1년을 맞으면서 그룹 지배구조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기존의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려면 계열사 부실 전이, 국회의 삼성 겨냥 입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삼성은 지난해 삼성SDS와 제일모직을 상장하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기·삼성SDI→제일모직으로 단순화했다.

문제는 이 부회장이 이 같은 기존 출자구조를 유지한다고 해도 여러 난관에 봉착한다는 점이다.

우선 순환출자는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갤럭시S5의 부진으로 삼성전자 IM(IT·모바일)부문의 영업이익이 1조7500억원 대로 주저앉은 작년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4조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5% 급감했다. 이런 경영위기는 삼성전자의 지분 7.21%를 보유한 삼성생명으로 전이될 수 있고 나아가 그룹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수도 있다. 실제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는 약 16조원인데, 삼성생명의 자본총계는 작년말 22조2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삼성전자가 부실해지면 삼성생명도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 삼성을 겨냥한 입법도 이 부회장의 고민을 키운다.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금융사의 비금융사에 대한 의결권이 축소되고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한도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순환출자 고리도 자연스럽게 깨지는 것이다.

"삼성의 3세 경영체제에서는 불완전한 현 지배구조보다는 지주회사 체제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삼성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인사

■ 국토교통부
[illegible] 국장급 전보 ▷건설정책국장 김경욱

■ 미래창조과학부
[illegible] 국장급 전보 ▷과학기술정책국 [illegible] 이상학

■ 국민안전처
[illegible] 전보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이동철 ▷[illegible] 부이사관 유재욱

■ 한국광물자원공사
[illegible] ▷경영관리처장 김경배 ▷자원기술처장 이동선 ▷개발운영팀장 윤용진 ▷국제협력팀장 정수봉 ▷신규기술팀장 이정미 ▷투자기획팀장 서영천 ▷[illegible] ▷환경기술팀 [illegible]

■ 제일모직
▷기획홍보국장 [illegible] ▷홍보실장 겸 [illegible] ▷감사실장 [illegible] ▷경영본부장 [illegible]

부고

▲ [illegible]씨 별세, [illegible](삼성전자 [illegible]) 부사장 [illegible] 모친상 = 9일 오전 6시 4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2일 오전 10시 30분 ☎ 02-3410-3151

▲ [illegible]씨 별세, [illegible] 모친상 = 10일 [illegible] 장례식장, 발인 12일 ☎ 054-233-4444

▲ [illegible]씨 별세, [illegible] 부친상 [illegible] 별세 [illegible] 부친상 = 9일 오후 4시, 서울 [illegible] 장례식장 4호실 발인 11일 오전 6시 ☎ 02-870-2877

▲ [illegible]씨 별세, [illegible] 부친상 = 9일 오후 5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1일 오전 11시 ☎ 02-3010-2000

▲ [illegible]씨 별세, [illegible](KB국민은행 [illegible]) 부친상, [illegible](KBS부산방송총국 보도제작부장)씨 빙부상 = 9일 오전 2시 [illegible] 장례식장 4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30분 ☎ 051-630-4444

▲ [illegible]씨 별세, [illegible](조선일보 [illegible]) [illegible](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씨 빙부상 = 9일 오후 7시40분 [illegible]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1일 7시 ☎ 055-545-4447

1억 웃돈 붙은 동탄2신도시 '즐거운 비명'

| 부동산 레이더 |

낮은 금리에 선납률 높아 KTX·GTX도 개통 앞둬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전경 /기사제공

상업시설과 대단지가 빽빽하게 늘어선 동탄1신도시를 거쳐 달려온 탓일까. 동탄2신도시는 한적하게만 느껴졌다. 넓게 펼쳐진 허허벌판 속에서 자량 내비게이션 역시 길을 헤매기 일쑤였다.

지난 8일 최근 분양 시장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를 방문했다.

여곳저곳에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으나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지 내 상가에는 수많은 부동산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부동산 점포 유리창에는 '전매'라고 적힌 종이가 쉽게 발견됐다. 초기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매물 광고 역시 여럿 보였다. 점포 안에는 쉴 새 없이 상담 중인 중개업자와 고객들이 있었다.

아직은 황무지에 가까운 동탄2신도시. 그러나 동탄 지역의 분양가는 높은 인기와 함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부동산 관계업자에 따르면 초기 동탄 분양가는 1000만원 대 초반 수준이었다. 우남건설 공급단지는 1007만원, 호반건설 단지는 1070만원 정도로 책정됐다. 포스코와 반도 건설 등 여러 건설사가 분양을 진행 중인 현재는 대개 건설업체의 평당 분양가가 1100만~1200만원 수준으로 맞춰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에 따른 프리미엄도 상당한 추세다. 초기 3억4000만원으로 공급을 시작했던 우남건설 퍼스트빌의 경우 현재 4억4000만원을 호가하며 1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전세물량도 찾아보기 어렵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는 기존의 입주속도 흐름을 따르지 않는 특이 지역"이라고 말했다. "낮은 금리 탓인지 입주지정기간 잔금 처리를 다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납률도 높아 동탄2 시범단지 시공사들은 잔금 납부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쏟아지는 공급 물량에도 꾸준히 수요가 이어지는 까닭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KTX와 GTX 개통을 앞두고 있어 현재 가격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답했다. 내년 6월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바로 옆에는 KTX 동탄역이 개통된다. 오는 2020년에는 KTX 선로와 같이 사용하는 삼성~동탄 37.9㎞ 구간에 시속 180㎞의 GTX가 도입될 예정이다.

동탄역 옆 부지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상승세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현재 동탄2신도시는 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교통편은 우수하게 갖추고 있다. 단지 옆에는 강남·수원, 병점행 버스 노선이 약 13개가 깔려 있다.

시범단지 내에는 초중고교가 모두 개교 중이다. 동탄2신도시 중심에는 리베라CC가 위치해 롯데, 호반, 한화 등이 제공하는 아파트에서는 골프장을 조망할 수 있다.

/유재형기자 sanfer@metroseoul.co.kr

4월 주택거래량, 2006년 來 '최대'

전세 대신 주택 구매 늘어

지난달 주택매매거래량이 2006년 이후 동월 대비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주택거래량은 12만48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3% 늘었다. 전 달인 3월과 비교하면 7.7% 증가했다.

4월 주택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6만3712건, 지방이 5만6776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월 대비 각 47.0%, 13.8% 증가한 수치다.

서울은 2만3252건을 기록해 68.0% 늘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3452건으로 80.8% 올랐다.

전국 주택 유형별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가 8만3483건 거래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7% 증가했다. 연립·다세대는 2만1939건으로 34.1%, 단독·다가구는 1만5066건으로 25.9%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작년 동월 대비 ▲아파트(4만4055건) 45.9% ▲연립·다세대(1만5040건) 49.8% ▲단독·다가구(4617건) 49.3% 거래량이 증가했다.

지방은 ▲아파트(3만9428건) 13.7% ▲연립·다세대(6899건) 9.2% ▲단독·다가구(1만449건) 17.8%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세 대신 주택을 사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송한별기자 gardenell

"꼬마화가 찾아라"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10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0회 우리미술대회'에서 베트남 어린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국내은행, 해외서 '빛' 찾는다"

1분기 당기순이익 1340억원 작년比 210억 증가

국내은행들의 해외 영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글로벌 수익 비중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외환·국민·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 1분기 동안 해외에서 134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둬들였다.

이는 전분기보다 236억원, 작년 동기보다 21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저금리·저성장 추세에 허덕이던 국내은행들이 해외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곳은 신한은행으로 올 1분기 378억원(약 35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한은행은 역대 최대 수익을 올렸던 지난해 2분기(371억원) 기록을 경신했다.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글로벌 수익 비중도 9.8%로 지난해 평균(8.7%)을 상회했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 영업망을 확보한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 해외 185개 지점에서 382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4분기 22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올 1분기 13곳의 하나·외환은행 해외지점에서 513억원의 순익을 올렸다. 전분기(118억원)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다만 KB국민은행은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국민은행은 18곳 해외지점에서 전분기(114억원)보다 47억원 감소한 67억원의 순익을 거뒀다.

한편 해외점포의 활성화를 위해선 현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에 현지인을 해외점포장으로 임명하는 등 현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감사를 파견하고 한국에 유학 중인 현지 학생들을 활용해 육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로또당첨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3	21	22	33	41	42	20

등위	당첨요건	당첨금(원)
1등	6개숫자 일치	2,396,012,100
2등	5개 숫자+2등보너스 숫자	54,598,373
3등	5개숫자 일치	1,454,531
4등	4개숫자 일치	50,000
5등	3개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정동길 21-15 동성빌딩 2층
TEL 02)721-9800 FAX 02)730-1511
발행인 겸 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충환
편집국장 강제윤
광고문의 02)721-9861~3
독자센터 02)721-9861

보험업계, 영업채널 개선안 '동상이몽'

당국, 보험상품중개업 제도 신설 – GA에 책임·권리 강화

불완전판매 등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독립보험대리점(GA)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보험상품중개업자제도가 발의됐다. 하지만 GA와 보험중개업자, 기존 보험사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8일 위 내용을 포함한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인 황진태 대구대 교수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 지위를 보장받는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보험상품중개업자제도란 GA 등 보험판매채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업자에게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보험상품중개업자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 지위를 보장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영업채널에게 법적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를 두고 GA, 중개사, 보험사, 소비자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GA는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수료 인하 문제에 강력히 반발했다.

중개업자
"GA, 전문성 결여 기업시장 진출 안돼"

GA
"도입 취지는 이해 수수료 인하는 반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판매채널의 모집 수수료를 명시해야 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에 승환계약(판 보험사에 스카우트된 보험설계사가 종전 보험사의 보유계약을 함께 옮겨 가져가는 부당 모집행위) 고지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중개사는 대형 GA의 기업보험 시장 진출을 우려하고 있다.

한관영 보험중개협회 회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성이 없는 대형 GA가 기업보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꼴이 된다"며 "금융시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선진금융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도 다른 속내를 보였다.

GA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립지위 강화가 탐탁지 않은 것.

보험연구원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인 황진태 교수와 관계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제공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GA에 소속된 설계사가 전체의 절반일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았다"며 "GA에 대한 적합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판매채널업자인 GA가 보험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앞서 지난 2008년에도 각 이해당사자 간 이견차이로 이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의 가장 큰 방향은 소비자보호인 만큼 각 단체들이 이를 위해 한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9141@metroseoul.co.kr

"5월은 사회공헌의 달"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가운데)과 김연아(흰옷 2번째)가 함께 어린이들과 놀이시설 개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KB금융 제공

"금감원, 채권단 동의 없이 '기업구조조정' 개입 못해"

앞으로 채권단의 동의가 없으면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의 기업 구조조정 개입 과정과 결과는 모두 기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당 의원 20여명과 11일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채권단의 자율권과 투명성 보장 등 관치 금융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와 선결 조건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이 갖고 있던 채권행사 유예요청 권한은 주채권은행으로 이관된다. 금감원의 개입 범위는 기업개선계획과 채무 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 등으로 한정했다.

금감원의 중재안은 채권액 비중 75%, 채권자수 기준 40%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 채권단 협의회 구성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금감원이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업구조조정 개입을 공식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기촉법 적용 대상 또한 모든 기업과 모든 채권자로 확대된다. 한시법은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기촉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감원의 중재 과정과 결과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여기에 3년마다 워크아웃 성과 평가와 결과를 공개해 워크아웃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다만 부실 징후 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의 경우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백아란기자 alive0603@

'e편한세상 신촌' 등 22개 단지 공급

분양캘린더

지난달 전국 분양 실적이 2008년 35사 이후 매년 동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분양시장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5월 둘째 주에도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5월 2주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22곳, 당첨자 발표 17곳, 당첨자 계약 16곳, 견본주택 개관 7곳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대림산업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1-3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신촌'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59~114㎡ 총 1910가구 중 625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아현역, 신촌로, 마포대로, 내부순환도로 등의 교통망을 갖췄다.

같은 날 한신공영과 제일건설이 경기도 부천 옥길지구 A3-C2블록에 짓는 '제이드카운티'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74~97㎡ 전체 1190가구다. 국철1호선 역곡역과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14일 경기도 수원 권선동에서 '수원 아이파크시티 5차'를 1순위 공급한다. 31~74㎡ 전체 550가구 규모다. 수원버스터미널, 이마트, 롯데마트, NC백화점,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립도서관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반도건설은 15일 대구 동구 신천동 일원에서 '동대구 반도유보라'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39~84㎡ 총 764가구 중 5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구지하철 1호선 신천역이 도보 거리다. 동대구역,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이마트, 칠성종합시장, 시민체육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날 경남 거제시 양정동과 문동동에 공급하는 '거제2차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73~103㎡ 전체 1279가구다. 인근에 거제중앙로, 국도우회로, 양정터널과 인접했다.

/박선옥기자 pso7903@

저금리 장기화… CMA 인기 부활 날갯짓

잔고 50조 육박… 사상 최대
증권사, 카드연계 상품 봇물

한동안 주춤했던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중금리 덕분에 되살아났다.

사상 최저로 기준금리가 추락하면서 CMA로 뭉칫돈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친 지난달에는 2조원이 넘는 대기성 자금이 CMA로 몰렸다.

전문가들은 "하루만 맡겨도 2%에 가까운 금리를 제공하는데다 증권사가 출시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CMA 잔고는 49조4886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해말 46조3349억원이던 CMA 잔고는 올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50조원을 넘보는 규모로 불어났다. 특히 4월 한 달간 2조96억원이나 늘어나 올해 들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CMA 수도 지난해 말 1105만개에서 지난달 말 1125만개로 넉 달 새 20만개 증가했다.

이처럼 시중 자금이 CMA로 몰리는 것은 올해 3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영향이 크다. 기준금리가 연 2.00%에서 연 1.75%로 내려가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가 CMA의 금리와 맞먹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CMA는 기본적으로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지만, 보통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 콜 금리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우려가 거의 없다.

CMA는 크게 환매조건부채권(CMA-RP)형과 머니마켓랩(CMA-MMW)형으로 나뉜다. CMA RP형은 주로 국공채·은행채 AAA급 회사채에, CMA-MMW형은 한국증권금융(신용등급 AAA)의 예수금이나 콜에 투자한다.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지만 주로 우량자산에 투자해 안전하다. 증권사가 투자기간 약정금리를 제공하고 단 하루만 돈을 넣어도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돈을 맡기거나 월급 통장으로 활용하면 좋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증권사들도 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연 최고 4.85% CMA금리 혜택을 주는 신한금융투자 CMA R+ 체크카드 를 최근 선보였다.

'CMA R+ 체크카드'는 지난해 6월 첫 선을 보인 이후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 CMA R+ 신용카드의 혜택을 키우고,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얹었다. 특히 100만원 이상 사용하면 제공금리가 4.85%로 훌쩍 뛴다. CMA 금리우대 서비스를 적용하면 30만원 이상만 사용해도 3.15% CMA금리가 제공된다. 또 패밀리레스토랑과 커피 전문점 최대 30% 할인, 백화점과 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최대 5% 캐시백 등 신용카드 부럽지 않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아(30%)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을 챙기는 데 유리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현대증권은 주식형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연금저축 상품 등에 추가 수익률을 제공하는 체크카드 '에이블 아이따스 카드'를 내놨다.

이 카드는 금융상품 가입시 해당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주식형펀드 연 14.4% ▲ELS 파생결합증권(DLS) 연금저축 회적연금 연 12%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연 6% 등의 추가 수익률을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밖에 대신증권도 신한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밸런스(Balance) CMA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내놓은 바 있으며 삼성증권도 삼성카드와 연계한 체크카드 두장을 선보이기도 했다.

/최으라기자 mrc@metroseoul.co.kr

신한카드 장기렌터카 사업 본격 시동 신한카드 권오흠 부사장(가운데)이 지난달 소공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장기렌터카 1호 고객인 (주)코리아월드 김승규 대표(왼쪽 두번째)에게 기념 선물을 증정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 제공

허점 드러난 공시지분제도, 이대로 괜찮나

기자 수첩

김보배 <경제부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정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24만5000주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29만3500주에서 4만8500주 감소한 규모다. 정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도 0.2%에서 0.16%로 줄었다.

정 부회장이 언제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했는지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에 매각한 것으로 추정, 당시 삼성전자의 평균 주가인 124만2000원을 적용하면 정 부회장의 주식 매각대금은 600억원을 넘는다.

이 과정에서 정 부회장은 기업공시를 통해 지분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시의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공시는 기업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다.

특히 기업의 상장주식 등의 변동내용은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다. 정부에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지분공시제도를 통해 변동 정보를 신속하게 공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의 지분 변동 공시의무는 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현행 지분공시제도의 대량보유(변동)보고(5%룰)에 따르면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소유분을 합해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자는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정 부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전 지분율은 0.2%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주식 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도 아니다.

정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조카다. 때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벗어난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경우 소량의 주식 거래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이다.

실제 10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97조865억원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15%에 달한다. 한 주당 가격은 133만8000원이다.

현재 국내 25여개 기업이 시가총액 10조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대기업에 지분공시제도의 일명 '5%룰'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논의하면서 규제완화 정책에 연을 올리고 있다.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해선 기업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되살펴봐야 할 것이다.

KT '데이터 요금제' 통신株 견인하나

경쟁 우려 주가하락 일시적
중장기 'ARPU' 긍정 전망

KT가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동통신시장에 요금제 개편 바람이 일고 있다. 이통3사는 LTE시장 포화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규제 리스크에 한동안 몸살을 앓아 왔다.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데이터 요금제 출시를 예고하면서 고객 유지 경쟁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KT는 전날보다 1.13% 떨어진 3만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텔레콤은 전일 대비 2.29% 내린 25만6500원, LG유플러스는 0.51% 하락한 9800원을 기록했다. 이통사의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운 경쟁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탓이다.

이날 KT는 국내 최초로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출시했다. 최저 요금인 299요금제에서 499요금제까지는 무선 간 통화가 무한 제공된다. 데이터는 요금제별로 300MB부터 6GB까지 부여된다.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잇따라 데이터 요금제 출시를 예고하면서 이들 이통3사의 고객 유지 경쟁 패러다임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KT가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이통3사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이통사 간 요금 경쟁이 가입자당월매출(ARPU)을 하락시킬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음성·문자보다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매출은 곧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LTE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지난 2012년 1월 1.5GB에서 2015년 3월 3.4GB로 급증했다"며 "고사양 게임, 음원 스트리밍, 고화질 동영상 등으로 데이터 이용이 증가하는 패턴을 고려하면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중장기적으로 ARPU에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도 "이통사가 LTE 도입 이후 가입자 증가에 따른 양적인 성장을 해왔다면 2016년부터는 데이터 사용량 증대를 통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시기"라며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의 개편은 성장을 위한 선행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배기자 bo@

KT가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내놓은데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를 예고하고 나섰다.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운 이통3사의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시스

2015년 2차 벤처기업 공동채용

대한민국 우수벤처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열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 벤처기업 공동채용 지원사업이란?

공동채용 참여기업 수준

신입사원 기준 연봉 2,200만원 이상의 정규직을 채용하고자하는 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벤처기업

지원방법

벤처전문취업포털 브이잡(www.v-job.or.kr)
공동채용관에서 기업별 세부 모집요강 파악 후 지원

지원자격

대학졸업자 및 특성화고 졸업자(예정자)를 포함한 미취업자

모집일정

2015.04.29(수)~2015.05.15(금)

채용절차

문의처

벤처기업협회 인재지원팀 02)6331-7051~7054
E-mail : job@v-job.or.kr

- 2차 벤처기업 공동채용 주요 참여기업 -

▶ 선도벤처기업관 ◀

- ㈜미원정공
- ㈜선인
- ㈜슈프리미
- 알에스오토메이션㈜
- ㈜가온아이
- ㈜퓨처시스템
- ㈜세무테크
- ㈜메타네트웍스
- 엠에스웨이㈜
- ㈜아미코스메틱
- ㈜그린아이티코리아
- ㈜와이즈넛
- ㈜위세아이텍
- ㈜이픽
- ㈜지디일렉스

▶ 우수성장기업관 ◀

- MDS테크놀로지㈜
- ㈜한선에이엠에스테크
- ㈜보성알엔디
- ㈜스피던트
- ㈜엔젤
- ㈜에스앤케이
- 엘에스웨어㈜
- ㈜미디어앤코스텝컴퍼니
- ㈜케이스마텍
- 로버무트㈜
- ㈜진
- ㈜베스콘
- 플랜트에셋㈜
- ㈜하이디시큐리티
- ㈜세종티엔에스

▶ 연봉우수기업관 ◀

-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 ㈜한국정보기술단
- ㈜이이지
- ㈜삼호무역
- ㈜엘린기술
- ㈜케이오비에이
- ㈜더와이즈
- 비엔에프테크놀로지㈜
- 테크밸리㈜
- ㈜모니터랩
- ㈜픽소니어
- 이미지넥스트
- ㈜웰리테크놀로지
- ㈜와이즈에프엔
- ㈜프리미어오브제

중소기업청 KOVA (사)벤처기업협회

갤럭시 S6·엣지, 日서 '돌풍' 없었다

출시 2주 만에 판매량 순위↓ 시장 점유율 확대 '경고음'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S6 엣지의 일본 시장 현착륙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제품에 회사 이름까지 지웠지만 출시 2주 만에 판매량 순위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10일 일본 정보기술(IT) 리서치 사이트 BCN랭킹에 따르면 주간 판매 순위(4월27일~5월3일 기준)에서 갤럭시 S6 엣지는 26위, 갤럭시 S6는 30위를 기록했다. 전주 집계에서 갤럭시 S6 엣지는 10위, 갤럭시 S6는 17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S6 엣지 일본 도코모 출시 모델. /삼성전자 제공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지난해 9월 출시된 아이폰6의 강세가 여전한 상황이다. 판매량 1위를 비롯해 상위 10위 중 아이폰6가 6자리를 차지했다. 이밖에 소니 엑스페리아 Z3와 샤프 아쿠오스 제타 등이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일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5.6%다. 삼성전자는 2012년까지 2~3위를 기록했지만 애플 아이폰과 소니, 샤프 등에 밀리며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일본은 연간 3000만여대가 팔리는 세계 4위의 스마트폰 시장이다.

갤럭시 S6·S6 엣지는 지난달 23일 일본 시장에 출시됐다. 삼성전자는 제품에 이례적으로 'SAMSUNG' 로고까지 지웠다. 이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일본내 반한 감정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갤럭시 S6·S6 엣지에 대한 일본 시장의 초기 반응은 기대를 밑돌고 있다. 아이폰의 입지가 굳건한 데다 자국제품 선호가 강한 일본 소비자들이 쉽게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제품 출시 이후 불거진 '밴드 게이트'와 '앱 삭제' 이슈'까지 더해져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격의 카드로 꺼낸 갤럭시 S6·S6 엣지까지 고전할 경우 일본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는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아이폰 강세가 두드러지고 자국 업체의 충성도가 높은 시장"이라며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 정체에 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주력제품 마저 고전하는 상황에서 시장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지난 8일 어버이날 삼성디스플레이에 초청된 임직원 가족들이 첨단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신기한 듯 만져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아들 직장 구경 가볼까"

삼성디스플레이 가족초청 체험 이벤트

삼성디스플레이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다양한 가족사랑 이벤트를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8일 어버이날에 디스플레이 생산 핵심시설인 제조센터 임직원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100여명을 회사로 초청했다.

기술 보안을 위해 평소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이 날 만큼은 가족들을 위해 캠퍼스를 공개했다. 자녀의 회사를 처음 방문한 부모님들은 자녀가 근무하는 회사에 직접 앉아보고, 디스플레이홍보관 관람, 소통 레크리에이션 참여 등 독특 두어 프로그램에 즐거워했다.

이용관씨(이언택 사원 부)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근무환경이 좋고, 복지시설들도 너무 마음에 든다"며 "특히 만지는 데로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제품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계속 근무했으면 좋겠다"며 방문 소감을 남겼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5일 어린이날에도 각 캠퍼스마다 임직원 가족초청행사를 개최, 8000여명의 가족을 초청했다. '아빠와 함께 드론 띄우기', '과학체험존', '자연학습놀이' 등 수십 가지의 체험 행사를 마련해 임직원들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회사를 제대로 알리고 임직원 가족들도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가족사랑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뜻 깊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한진기자

LG전자 '무빙파크 캠페인' 포터블 스피커 40대 후원

LG전자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음질과 편의성을 강화한 포터블 스피커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했다.

LG전자는 10일 서울시가 주관하는 도심 속 이동형 공원 조성 행사인 '무빙파크 캠페인'에 참가했다.

이 캠페인은 만리재에서 명동까지 이어지는 서울역 고가도로 중 600m 구간을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행사다.

LG전자는 공원 잔디밭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LG 포터블 스피커(모델명 NP7550) 40대를 준비했다.

시민들은 공원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정보기술(IT)기기와 LG 포터블 스피커를 블루투스로 연동해 원하는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조한진기자

또 부푼 배터리… 갤럭시 S6 안전성 도마

S3와 노트1·2서도 논란

삼성전자 갤럭시S6의 배터리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갤럭시S6 일부 제품 배터리에서 스웰링(부풀어 오름) 현상이 발견됐다. 이는 과거 갤럭시 시리즈에서 비슷한 현상이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 11월, 2014년 3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스웰링에 따른 무상 교환 서비스(갤럭시S3, 갤럭시노트1·2)를 실시한 바 있다.

10일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 '뽐뿌' 에는 갤럭시S6의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사진과 글이 게시돼 주목받고 있다.

'갤럭시S6의 배터리가 부풀어 올랐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날아라XX'은 "대리점에서 갤럭시S6 기기를 받고 개통도 안하다가 결국 쓰던 전화가 끊겨서 박스를 열었더니 단말기 배터리가 부풀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을 보면 갤럭시S6가 폭발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풀어 올랐음은 눈으로 뚜렷하게 확인 할 수 있다.

그는 "갤럭시S6 앞뒤로 틈이 벌어지는 유격현상까지 크게 나타났다"며 "전원버튼을 눌러도 켜지지 않고, 폭발하지 않은게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삼성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그는 "업무가 바빠서 그냥 넘어갔지만 기분은 그리 좋지 않다"고 글을 남겼다.

그러나 갤럭시S6의 배터리 스웰링 문제는 해외에서도 논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IT전문 블로거인 RB 밴은 "스마트폰용으로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불량으로 추정된다"며 "팽창의 정도를 봤을 때 폭발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6 모델 중 배터리 부풀음 현상이 발생한 제품.

/정문호기자 ysw@

삼성전자, 美 UHD 지상파 방송 표준규격 채택

최초 규격문서 승인

삼성전자가 주도한 북미 지상파 UHD(3840 x2160) 방송 물리계층 부트스트랩(Bootstrap) 규격이 북미 ATSC 3.0 잠정 표준(Candidate Standard)으로 채택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미국 주요 방송사업자 싱클레어의 자회사 ONE Media사와 공동으로 부트스트랩 규격을 제안해 전국망규모 1위 사업자인 pearl 그룹을 포함한 미국 방송사업자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이번에 ATSC 회원사 투표를 거쳐 최초의 규격문서로 승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채택시킨 기술은 부트스트랩 신호가 기존의 데이터 신호와 분리해 운영 가능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해 방송사업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열악한 방송 수신 환경에서도 부트스트랩만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이동 서비스에서 일부 구간에서의 수신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기존 신호는 끊기지 않아 서비스의 연속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ATSC 3.0 규격은 이번에 승인된 부트스트랩 규격을 필두로, 올해 연말까지 물리계층 규격, 전송계층 규격, 코덱 등 응용계층 규격이 추가로 잠정 표준 승인 될 예정이다.

이후 각각의 잠정 표준을 통합해 2016년 초에 최종 표준규격이 제정된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방송 표준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방송 표준의 미래에 대해서 방송사들과 꾸준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려운 단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개념의 부트스트랩 표준화를 공동 추진하여 기술 진화를 수용할 수 있는 차세대 디지털 방송 표준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미 채택된 기술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규격을 상정, 계속해서 기술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정문호기자

KT 데이터 요금제, 공짜 내세운 '황의 꼼수'

기존 요금제와 고작 1110원 차 기본 제공량 초과땐 속도 제한

"월 2만원 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음성 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4304억원의 가계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

KT는 고객의 데이터 이용 패턴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최근 내놓았다. 이로 인해 LTE 고객 1000만명에게 1인당 평균 월 3590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을 예상한다고 KT는 밝혔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 LTE 요금제와의 실질적 비교에서도 '국내 최초 파격적인 요금제'라 강조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새 요금제 출시로 단기적으론 가계 통신비가 연하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줄 수 있다. 현재 음성·문자 서비스의 경우 1990년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비용이 이미 회수됐다고 보고 있다. 제공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선 이용자 부담 비용이 저렴해 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기존 음성통화 망 구축은 완료됐고 앞으로 영상 전송 속도 등의 증가에 따른 데이터 중심 수요가 가파 급수적으로 커질 것을 고려했을 때 데이터가 관건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선 가계 통신비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웨어러블·스마트 기기의 발전과 ICT 기술 발전은 데이터의 수요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 기존 LTE 요금제와 다를 바 없는 KT의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

KT 데이터 요금제와 기존 LTE 요금제(KT 순완전무한)의 유사 서비스를 비교해보자. 순 완전무한 51요금제는 기본료 부가세 포함해 5만6100원에 5 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고 음성과 문자는 통신사와 유무선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LTE 데이터 선택 499 요금제는 부가세 포함 5만4890원으로 차이는 1110원 이다. 데이터는 6GB를 제공하고 무선 전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특징적인 부분은 유선을 제외한 무선 전화만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유선 전화는 단 30분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실상 1000원 차이를 보전할 여지를 만든 것이다.

또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무제한에도 '제한'이 있다. 음성 통화는 엄밀히 말하면 월 1만분, 문자는 하루 500건을 제한한다. 데이터는 기본 제공량이 넘으면 속도제한을 통해 망 부담을 줄이는 방침이다. 더불어 KT는 음성통화 이용에 대한 제한 사항을 만들었다.

총 4개의 제한 사항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별정에 기준 유사 요금제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일 600분 이상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할 경우 월 음성통화량이 600분(부가세포함 6만원 이상 요금제 1만분)을 초과해도 제한을 받는다. 또 음성통화 수신자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발신통화가 1000분 초과하면서 착신통화가 100분 이하인 월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지 의심스럽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의 체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됐다.

우 의원은 "기본 요금이라고 하는 성격이 90년대 당시 초기에 투자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에 한해서는 원활하게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그게 바로 기본(투자비)요금인데, 현재 집전화(유선) 같은 경우 초기투자 비용은 거의 다 회수됐기 때문에 기본료를 최저 책정해 월 1000원 정도 받 듯 무선전화에서도 이제는 기본 요금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동안 기본료는 통신사가 망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이중 징수를 했지만 그 필요성이 소진된만큼 통신사가 입는 타격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최빛나기자 hn1103@metroseoul.co.kr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연세대 명예 박사학위

경제·대학발전 기여 공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연세대학교에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는 박 회장이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회장은 전날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백양콘서트홀에서 열린 '연세창립 130주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룹에 따르면 박 회장은 1945년 3월 15일 광주에서 태어나 1967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금호타이어에 입사해 경영에 첫발을 내디뎠었다.

이후 금호실업과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2002년부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9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왼쪽)이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백양콘서트홀에서 정갑영 연세대 총장으로부터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제공

평소 합리성에 기반한 경영과 고용증대를 통한 사회기여를 강조해 온 박 회장은 운송, 타이어, 건설, 항공 등 국가 기간산업과 교육, 문화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그룹은 전했다.

박 회장은 대외적으로 교육, 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왔다.

2005년 4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장에, 올해 2월 9대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에 취임하며 문화예술 후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연세대 총동문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동문들의 힘을 모아 학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양로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연세금호아트홀 건립을 후원함으로써 모교의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승용기자 russa@

9일 쉐보레 부평 본사 홍보관에서 열린 2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본선 대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쉐보레 제공

쉐보레 '꼬마 피카소' 찾아라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4800여점 응모 20명 수상

쉐보레는 국내 도입 4주년을 기념해 전날 부평 본사 홍보관에서 2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본선 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4800여점의 예선 응모작이 접수됐다.

본선은 심사를 통해 예선전을 통과한 어린이 100명이 경합을 벌였다.

본선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자동차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 하에 자동차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다.

창의력, 주제 표현력, 색채 조화도, 작품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수상작이 선정됐다.

전문 심사단의 평가를 통해 유치부 8명, 초등부 12명 등 20명의 작품이 최종 수상 작품으로 뽑혔다.

수상자에겐 상장과 트로피를 비롯해 2000만원 상당의 단기연수권, 여행권, 상품권 등의 부상이 제공됐다.

이경애 한국지엠 마케팅본부 전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총 4800여점 이상의 예선 작품이 접수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며 "쉐보레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한 고객 대상 마케팅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쉐보레는 슈퍼 세이프티 프로젝트를 통해 총 1000곳의 어린이 관련 시설에 폐쇄회로(CC) TV 등 보안 시스템을 기증하는 한편 스마트 조끼 배든 인전 주멍우산, 어린이 안전 필벳 제공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성원기자

기아차 '서프라이즈 위크엔드' 음악·드라이빙 등 체험 다채

기아자동차는 전날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 서킷에서 2015 기아 서프라이즈 위크엔드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기아 서프라이즈 위크엔드는 기아차가 2013년부터 여승, 음악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고객이 기아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다.

올해는 '뮤직 온 더 서킷'이란 주제로 꾸몄다. 기아차는 20대 고객 400여명에게 ▲음악 체험 ▲드라이빙 체험 ▲기아 브랜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음악 체험은 인제 스피디움 서킷에서 DJ가 펼치는 디제잉 공연과 남성 힙합 듀오 '다이나믹듀오'가 트랙 위에서 펼치는 콘서트로 구성됐다.

기아자동차는 9일 강원도 인제시 기린면 북리에 위치한 인제 스피디움 서킷에서 '2015 기아 서프라이즈 위크엔드(KIA Surprise Weekend)'를 개최했다. /기아차 제공

드라이빙 체험은 ▲레이서가 운전하는 K3에 동승해 속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서킷택시 ▲레이서를 따라 직접 서킷을 주행하는 서킷가이드랩 등의 활동으로 시행됐다.

기아 브랜드 체험은 ▲기아차 캐릭터 '멘지와 친구들' 종이 장난감 만들기 ▲레이싱 게임 ▲브랜드 컬렉션 전시 등으로 실시됐다. /이정필기자

롯데월드몰 무료 개방 첫날 "9만9000명 몰려"

주말 이틀간 20만명 전망 평소보다 매출 50% 이상↑

롯데물산(대표 노병용)은 롯데월드몰 무료 관람 첫 날인 9일 총 9만9000명(면세점 제외)이 관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4월 하루 평균 방문객보다 5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오전부터 방문객이 늘어 시네마 1만명, 아쿠아리움에는 2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렸다. 아쿠아리움 앞에 있는 푸드코트도 9일 하루 매출이 4월 평소 주말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9~10일 이틀간 약 20만명의 고객이 몰릴 전망이다.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하는 아쿠아리움과 시네마에 대한 무료 관람 온라인 접수도 마감됐다.

온라인 접수는 8일 오전 10시 롯데월드몰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쿠아리움 무료 관람객 6000명이 선착순 마감된 데 이어 오후 4시에 1000명을 추가로 받았다. 시네마 역시 롯데시네마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총 3만 명을 모집했다.

박현철 롯데물산 사업총괄 본부장은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총 3만 7000명에 달하는 무료 관람 접수가 모두 마감됐고, 롯데월드몰에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 드린다"며 "안전조치 등을 더욱 철저히 점검해 완벽한 모습으로 12월 정식 재개장을 준비해 고객들을 맞겠다"고 말했다.

롯데물산 측은 이번 아쿠아리움과 시네마 재개장으로 2만~3만 여명에 달하는 고객이 추가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5월 공사를 재개해 내년 공식 개관 예정인 콘서트홀은 롯데가 1200억원을 투자해 2036석의 대규모로 건립 중이다. 예술의 전당 이후 서울에 27년만에 건립되는 클래식 전용 공간이다. 개관에 앞서 연간 160억원 이상의 운영비용을 투자해 클래식 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롯데문화재단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정기자 ks2015@metroseoul.co.kr

SK플래닛 11번가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에서 인기 반려동물 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SK플래닛 11번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1일을 반려동물을 위한 '11번가 펫데이'로 지정하고 관련동물 용품을 60% 할인 판매하는 기획전 '11day 1펫바십 펫데이'를 11일 단 하루 진행한다. /뉴시스

냉동과일, 불황 속 마트 효자품목 등극

냉동 과일이 인기다. 생과일에 비해 보관이 용이하고 최근 과일을 요거트 등과 섞어서 먹는 것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빙수 재료로 냉동 과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당분간 인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냉동 과일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1% 늘어났다.

1~4월까지 매출도 지난해 보다 13.8% 늘었으며, 5월(5/1~7) 들어서도 12.8% 신장해 대형마트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냉동 과일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냉동 블루베리 매출(1~4월)은 전년 대비 4.7% 줄었지만 아사이베리·엘더베리·블랙커런트 등 기존에 취급하지 않았던 종류가 등장하며, 전반적인 신장세를 기록했다.

실제 롯데마트에서 1월부터 4월까지 떠먹는 요구르트의 매출은 11.4%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도 과일혼합 떠먹는 요구르트 매출은 24.4% 줄어든 반면 플레인 떠먹는 요구르트 매출은 117.0% 증가했다.

롯데마트는 15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04개점에서 '통큰 냉동 대국망고(500g~봉)'를 4900원에, '해우 냉동 애플망고(1kg·봉)'를 6900원에 선보일 계획이다.

신경환 롯데마트 과일팀장은 "기존 블루베리 일색이던 냉동 과일도 랍부단·리치·크랜베리·오디·석류 등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급속 냉각을 통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장기간 보관하며 먹을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2015@

'가짜 백수오' 조건부 환불에 소비자 뿔났다

소비자원·소비자단체들 "홈쇼핑 미온적 대처" 비판

TV홈쇼핑 업체들이 '가짜 백수오' 사태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결국 실패하고, 각 업체 별로 환불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먹고 남은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을 하겠다는 조건부 대응책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0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한국소비자원과 장시간 소비자들의 공동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으나 공동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백수오 제품 판매와 관련해 실적이 많은 업체와 상대적으로 실적이 적은 업체 간에 입장 차이가 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판매 제품까지 모두 환불하게 되면 전체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어 공격적인 환불 정책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각 업체는 개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환불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S홈쇼핑과 CJ오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은 구매 시점과 상관없이 남은 제품에 대해서 반품 처리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잔여 제품은 마찬가지로 반품 처리하되 잔여물량을 보관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 소정의 상품이나 포인트 지급 형식으로 간접 보상하기로 했다.

이날 홈쇼핑업계가 공개한 환불 원칙은 '배송 받은 지 30일 이내의 개봉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환급해 주던 종전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갔지만 여전히 조건부 환불인 셈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홈쇼핑에서 구매한 뒤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인 부분에 한해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어서 구매 내역이 있어도 제품이 남아 있지 않은 소비자는 구제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TV홈쇼핑 6개사와 환불안 마련에 나섰던 소비자원은 "업체들이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이엽우피소가 위해하지 않다는 점과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된 제품만 환불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워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10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홈쇼핑 업체들의 미온적인 환불 조치에 "환불을 미루고, 먹다 남은 제품만 환불해주는 홈쇼핑 업체의 대응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홈쇼핑 업계는 전액 환불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백수오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달 22일부터 5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백수오 관련 소비자상담 4448건 중 안전 관련 건이 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채신화기자 21c

유명 맛집, 백화점에서 매출 '효자' 톡톡

유명 맛집들이 매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며 백화점들이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5월 잠실점에 연단팥빵과 이재빵으로 유명한 '이성당' 매장은 롯데백화점 입점 후 월평균 5억원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롯데백화점 식품팀 관계자들은 당시 이성당 유치를 위해 군산의 이성당 본점을 3개월간 20여번 찾아가는 공을 들인 끝에 2013년 4월 팝업스토어(임시매장) 형태로 영업을 시작했다가 지난해 5월 정식매장으로 열게 됐다.

지난해 8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 올해 4월 잠실점에 정식 매장을 연 부산의 삼진어묵도 부산본점 월평균 2억5000만원, 잠실점 하루 평균 1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백화점 식품 부문 황승기 수석바이어는 "맛집이 입점하면 집객으로 이어져 다른 상품군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수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팝업스토어와 정식 매장을 활용해 다양한 국내외 맛집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HNT 하나투어리스트
국내 최대 여행축제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2015. 6.5(금) ~ 6.7(일) 3일간 일산 KINTEX
특가상품
BEST6
Hanatour
www.hanatourist.com
동남아 BEST
대만 (아류/지우펀) 4일
598,800부터
▶ 5월~6월 매일출발
중국 BEST
장가계 5일/6일
460,000부터
▶ 5월~6월 매일출발
일본 BEST
큐슈 4일
553,400부터
▶ 5월~6월 매일출발
남태평양 BEST
괌
★PIC리조트 4일/5일
[성인 2명+아동 2명 전용]
799,000부터
▶ 5월~6월 매일출발
미주 BEST
미서부일주
★3대캐년관광 8일/9일
1,651,700부터
▶ 5월~6월 매주 금,토요일
유럽 BEST
[프랑스/스위스/이태리/독일]
서유럽 4개국 8일
2,350,000부터
▶ 5월 24,29일
6월 3,7,12,14,17,19,24,26,28일
예약문의 1577-1212

외식업계 '야구 전쟁'

신메뉴 출시·프로모션 등 야구팬 공략 마케팅 열전

2015년 프로야구 시즌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계도 야구 전쟁으로 후끈달아 올랐다. 야구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색 신제품을 선보이거나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야구 팬들의 입과 눈을 사로잡고 있다.

아모제푸드가 운영하는 '카페아모제 잠실야구장점'에서는 50cm의 초대형 사이즈의 바게트 샌드위치인 '홈런바게트'로 야구팬들 입맛을 공략하고 있다.

홈런바게트는 겉은 바삭 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바게트 빵 사이에 각종 야채와 햄, 케이준 계살, 참치 등 9가지의 메인 토핑을 푸짐하게 담은 메뉴다.

더불어 야구장의 오랜 인기 먹거리인 치킨, 오징어를 달콤한 허니버터칩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오감닭과 마약옥수수, 코리안 BBQ 치킨도 판매 중이다.

bhc는 부산 사직야구장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입점 매장에서 간편하게 치맥을 즐길 수 있는 '알골뱅'을 출시했다. 알골뱅은 한 입 크기인 순살 치킨과 시원한 맥주를 한 용기에 담은 아이디어 메뉴다. 맥주를 빨대로 마시는 이색적인 재미를 더했다.

/카페아모제 제공

특정 구단과 손을 잡고 프로모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CJ푸드빌은 두산베어스 홈경기 시 생일을 맞은 관람객에게 하우스와인 포와 샐러드바 식사권을, 어린이 관객에게는 어린이 샐러드바 식사권을 제공한다.

또 퀸스데이(QUEEN sDAY)에 입장하는 여성 관중에게는 샐러드바 식사권과 당일 입장권 추첨을 통한 스테이크 식사권을 증정한다.

파파존스는 올 시즌 동안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연승 결과에 따라 매주 목요일 온라인 주문 시 할인한다. 넥센 히어로즈 경기 결과에 따라 경기 다음주 목요일에 적용된다. 2연승 시 25%, 3연승시 30%, 4연승 시 35%, 5~6연승 시 40%를 할인해 연승 횟수가 커질수록 혜택 또한 커진다.

/김보라기자 bora6953@metroseoul.co.kr

"프링글스 파티 스피커로 어디서나 신나는 응원을" 농심 켈로그의 세계적인 감자칩 브랜드 프링글스가 10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파티 스피커로 젊음의 활력 충전하세요'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프링글스 감자칩 사고 파티 스피커를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을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진행하고 있다. /프링글스 제공

"어른도 어벤져스" 그래픽 상품 판매↑

패션업계가 영화 어벤져스 특수를 누리고 있다. 영화가 개봉 후 누적관객 7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패션업계가 출시한 캐릭터 상품 판매량이 급증했다. 어벤져스뿐만 아니라 미키·심슨 등 다양한 캐릭터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어랜드 스파오는 올해 출시한 그래픽 티셔츠의 판매량(1~4월)이 전년 동기 대비 2.5배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스파오는 매년 커지는 키덜트족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올해 360여 가지의 그래픽 디자인 티셔츠를 출시했다. 키덜트는 아이(kid)와 어른(adult)의 합성어로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이 아이들의 감성과 문화를 추구하는 성인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달 23일 선보인 어벤져스 티셔츠는 입고 전부터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입고와 동시 인기상품들은 조기 완판됐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야광 효과를 내는 아크원자로 티셔츠는 초기 물량 2만장이 하루 만에 완판됐다. 이후 두 차례의 긴급 추가주문을 통해 추가 물량을 투입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스타워즈, 심슨 등 캐릭터 티셔츠를 출시했다.

스파오 관계자는 "어른들은 어린이와 달리 의사결정이 구매로 즉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키덜트족을 잡기 위한 상품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에는 글로벌 캐릭터 콜래버레이션을 더욱 늘리고, 제품의 비중도 올해보다 2배 더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터폴의 '어벤져스 2 키즈 에디션' 중 히어로 캐릭터 티셔츠와 운동화는 지난 4월 출시 이후 최근 한 달간 70%에 가까운 판매율을 기록했다. /이수정기자 ksj9835@

현대리바트, 친환경 자재 사용량 증가

현대리바트(사장 김화응)는 친환경 자재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30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현대리바트가 사용한 E0보드 물량은 1만3650㎥, 약 38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간(2013년 4월 30일 ~ 2014년 4월 29일)보다 64% 늘어난 수치다. 사용된 목재 연장길이는 서울과 부산 왕복거리를 넘는 약 910㎞다.

가구생산에 사용되는 목재는 원목과 MDF·PB로 구분된다. 이중 MDF와 PB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 E2~수퍼E0등급으로 나뉘며 현재 국내에서 대량생산·사용이 가능한 목재등급은 E0등급이 가장 높다. 정부에서는 E1등급 이상의 목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E0등급의 MDF와 PB는 정부 기준인 E1등급 보다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약 70% 적지만 E1등급 보드보다 약 10~15% 가량 가격이 비싸다.

현대리바트는 지난해 4월 국내 종합가구업계로는 최초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가정용 가구 전제품에 E0보드 사용을 밝히는 '유해물질 제로경영'을 선언한 바 있다.

아웃도어, 냉감소재로 여름장사 돌입

밀레 '콜드 엣지'·컬럼비아 '옴니프리즈 제로' 등 자체 개발 기능성 냉감소재로 차별화 전략

아웃도어 업계가 더위에도 야외활동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냉감 소재 신제품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여름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밀레는 올해 처음으로 자체 개발 냉감소재를 적용한 티셔츠를 출시하며 냉감 소재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콜드 집업 티셔츠'(사진)에 적용된 '콜드 엣지'는 자체 개발한 쿨링 기능성 소재다. 땀이 나면 원단에 코팅된 기능성 폴리머가 즉각적으로 반응해 열과 습기를 신속하게 흡수하고 외부로 배출해 피부 온도를 낮춰 정상 체온을 회복시켜주는 원리다. 상대습도 40%, 섭씨 22℃의 일반 대기환경에서 시행한 실험에서 콜드 엣지는 옷과 피부 사이의 온도를 최대 2도 가량 낮춰주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컬럼비아는 쿨링 티셔츠 '옴니프리즈 제로' 컬렉션을 출시했다. 옴니프리즈 제로는 옷감에 적용된 수많은 작은 블루링이 격렬한 활동 시 발생하는 땀 또는 물과 유사한 수분과 만나면 흡수 반응해 시원한 느낌을 주는 기술이다. 올해 출시된 제품에는 부위별로 통풍, 통기성을 구현한 벤트 기능을 더해 업그레이드 했다.

라푸마가 선보인 '프레시아이스 티셔츠'는 체온을 즉각적으로 식혀주는 라푸마만의 냉감 기술이 적용됐다. 특히 암홀과 소매 라인에 메시 원자를 사용해 땀 배출을 원활하게 했다. 땀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세균의 증식을 막는 데오드란트 기능도 적용했다.

K2도 PCM 냉감 시스템을 적용한 '쿨 360 티셔츠'를 내놓았다. 열을 흡수하고 저장, 방출하는 상변환물질로 이뤄진 마이크로캡슐이 온도가 올라가면 열을 흡수해 무더운 여름에도 쾌적하게 착용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면과 같은 일반적인 천연 소재보다 확연히 빠른 땀 건조 속도와 쾌적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냉감 소재가 올 여름 패션업계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기자 ksj0215@

훼라민큐, 女갱년기 치료 탁월

신체·정신적 증상 80% 개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선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갱년기에 접어든 어머니께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하던 자녀들은 최근 백수오 원료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생약성분의 갱년기치료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국제약에서 내놓은 '훼라민큐(Q)'는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받은 일반의약품 생약복합성분의 여성 갱년기 치료제다. '서양승마(블랙코호시)'와 '세인트존스워트'의 생약복합성분으로 1940년대 독일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훼라민큐는 기존 호르몬제와 거의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호르몬제가 유발할 수 있는 유방암, 심혈관 질환 등의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일반 갱년기 여성은 물론 호르몬제 복용이 불가능하거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여성도 생약성분인 '훼라민큐'를 통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7개 대학병원을 비롯 여의의 임상연구를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훼라민큐'를 8주간 복용 시, 안면홍조 발한, 우울감 등 여성 갱년기의 신체적·정신적 증상에 대해 80% 이상의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한 안면홍조 증상에는 86.4%의 개선효과가 있었다.

/최치선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산들건강 "환절기 폐·기관지 걱정 마세요"

산들통배고, 변석홍옥고

◆ 호흡기 건강에 좋은 산들통배고

폐나 기관지 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한 사람들은 감기에 더 자주 걸리고 비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이 심해 지속적인 운동과 꾸준한 건강관리를 해야한다.

산들통배고(사진)는 기관지와 폐, 목 건강에 좋은 천연재료들을 4일 이상 달여서 만든 제품이다. 산들통배고는 100% 국내산 배(경주), 도라지(소백산 산도라지, 영주 약도라지), 은행(영천), 대추(경산), 생강(영주, 안동), 맥문동(청양), 겨우살이(영월), 수세미(제천), 10년 이상된 도라지 분말(영주), 흑도라지, 산삼 배양근(제주도, 의성/산삼 7뿌리)등을 전통방식인 가마솥에 4일 이상 달여서 만든다.

미른 기침을 자주하고 편식하는 허약한 어린아이나, 고령에 기력이 약하며 가래, 기침이 심하고 체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산삼배양근이 추가로 들어간 삼(蔘)통배고가 적합하다.

◆ 황제의 명약, 경옥고(瓊玉膏)

변석홍옥고는 고종황제의 어의를 지냈던 변석홍 옹이 고종황제에게 진상했던 약재다. 제조방법이 가문 대대로 이어져 지금은 변석홍 옹의 4대손인 변기원 변한의원 원장이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살리면서 약효를 개선했다. 주재료인 인삼은 100% 국내산 홍삼을 사용하고 열을 내리고 정력에 도움을 주는 생지황은 충북 염동에서 직접 재배한 약재만을 사용했다. 특히 생지황을 즙 형태로 뽑아 내 성분의 효과를 극대화 끌어냈다.

경옥고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음양의 기혈을 보충해주고, 피를 맑게 해 조직 내 어혈을 풀어주며 원기를 보충해 주는 효과도 탁월하다. 또한 심장에 쌓인 화를 풀어주어 기능을 높여준다. 더불어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하루 2~3번 수저로 떠먹거나 따뜻한 물에 타 먹으면 피로가 쉽게 느껴지지 않으며 노화예방 효과도 볼 수 있다.

※산들건강 (02)[illegible] / 홈페이지 www.isandle.co.kr

공연티켓·찰보리빵… 강강술래 '경품 대축제'

이달말까지 홈페이지 추첨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illegible])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sulfal.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풍성한 선물을 증정하는 경품대축제를 진행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폴란드, 천년의 예술' 전시회 티켓(1인2매)을 준다. 또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시설에서 생산된 안심 먹거리 '보리미 찰보리빵' 선물세트(40명)도 증정한다.

아울러 [illegible] 구입하고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인테리어 정보를 총망라한 '싱글을 인테리어의 모든 것'과 가벼운 살 빼기 어려운 하악지 부위를 체력에 맞게 부위별로 나눠 총 42개 운동 동작, 7DAYS 프로그램 소개서 '하루에 한동작 해보지' 등 [illegible] 도서도 증정한다.

한편 이달 15일까지 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 감사세트(한우불고기60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750g+[illegible]520g)는 36% 할인된 [illegible]만원, 명인만찬세트([illegible] [illegible]360g+통등심돈가스720g)는 40% 할인된 4만2000원에 판매한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관광공사, 외국인 위한 전통시장 16곳 선정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형보)는 '외국인이 가기 좋은 시장' 16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시장은 각 지자체들의 추천으로 총 35개소 시장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시장은 외국관광객의 접근성, 즐길거리, 먹거리, 주변 관광지 등 관광매력도 등을 토대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예능 TV 프로그램 '런닝맨'의 촬영지로 유명한 부산국제시장은 이미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또 춘천낭만시장은 춘천 닭갈비 골목에 인접해 있어 외국인 선호도가 높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낭만시장

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16개 시장들을 대상으로 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해외 전역에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지 여행업계와 함께 관광상품화도 시도할 예정이다.

서울여대, 11년째 '심폐소생술 기본과정' 진행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7일 오후 2시 교내 학생누리관 앞에서 심폐소생술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 캠페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을 재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학기 마다 열고 있다. 교육을 진행한 노원구 보건소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응급처치요령,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등을 알려주고, 심폐소생술 안내문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열었다. 교육에는 심폐소생술을 익히려는 학생,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오는 13일 오전 9시에는 교내 학생누리관 이벤트홀에서 심폐소생술 이론교육과 실습을 통해 심폐소생술기본과정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심폐소생술 기본과정 33기'를 진행한다. 이 과정은 재학생들을 위해 2005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1년째 하고 있는 교육이다.

코레일관광개발, 육·해·공코스 '유적기행'

코레일관광개발이 육(KTX) 해(쾌속선) 공(항공)을 통해 남도부터 제주도까지 즐길 수 있는 여행상품을 출시했다. 오는 5월부터 매일 출발하는 이 상품은 지난해 영화 '명량'의 주무대 우수영과 추자노얼주와 제주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되었다.

첫째 날 오후 추자도에 도착 한 후 버스로 추자도일주를 즐긴다.

둘째 날에는 추자도 올레길을 걸으며 자유관광을 마치고 쾌속선에 몸을 싣고 제주항으로 향한다.

마지막날에는 원시림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사려니숲길을 산책하고 선비의 숲 곶자왈로 떠나는 기차여행 에코랜드 테마파크와 신지코지, 승마체험 등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다.

이렇게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제주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육·해·공으로 즐기는 남도와 제주도 여행이 마무리된다.

알파덤, 론칭 6개월 기념 전제품 할인

유러 화장품 알파덤의 공식 수입 업체인 범우데이터(대표 김지용)는 알파덤 전 제품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공식 론칭 6개월을 기념한 이번 이벤트에서는 '골드 크림', 마사지 오일 등을 비롯한 전 제품을 특가 판매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알파덤 공식 홈페이지(www.alpaderm.kr)를 참조하면 된다.

알파덤은 스위스 웰 유이옴 스킨케어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프랑스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에코서트와 코스메비오의 인증을 받았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골드크림'은 그 동안 구매절차와 AS등이 번거로운 구매 대행이나 인터넷 해외 직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공식 수입을 통해 구입이 쉬워졌다. 골드크림은 부드러운 보습 효과를 통해 피부 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김수정기자 [illegible]

수입차 전성시대… 베스트셀링카 '티구안'

아우디 A6·폭스바겐 골프·BMW 520d 뒤이어 달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는 폭스바겐 티구안으로 집계됐다.

아우디 A6와 폭스바겐 골프, BMW 520d는 뒤를 달렸다.

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1~4월 누계 수입차 판매량에서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 모델은 3454대가 팔려 선두를 달렸다.

A6 35 TDI는 2363대로 2위, 골프 2.0 TDI는 2213대로 3위를 차지했다.

520d 모델은 2109대가 팔려 4위, 아우디 A6 45 TDI 콰트로 모델은 1859대가 팔려 5위를 기록했다.

이어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1807대) △BMW 118d 어반(1538대) △메르세데스-벤츠 E 220 블루텍(1478대) △벤츠 C 220 블루텍(1462대) △렉서스 ES300h(1368대)가 각각 6~10위에 이름을 올렸다.

폭스바겐 티구안

지난달 판매량은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847대) △520d(615대) △E 220 블루텍(441대) △폭스바겐 제타 2.0 TDI BMT(403대) △BMW 520d x드라이브(381대) △폭스바겐 골프 1.4 TSI(379대) △포드 익스플로러(356대) △벤츠 S 350 블루텍 4매틱(348대) △골프 2.0 TDI(328대) △C 220 블루텍(326대) 순이다.

연료별로 보면 가솔린 모델은 지난달 △골프 1.4 TSI(379대) △익스플로러(356대) △벤츠 E300 4매틱(263대) △BMW 528i(211대) △토요타 캠리(207대) △닛산 알티마 2.5(198대) △벤츠 E 300(196대) △혼다 어코드 2.4(190대) △벤츠 C 200(187대) △벤츠 S 400 4매틱(172대) 등이 팔렸다.

디젤 모델은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847대) △520d(615대) △E 220 블루텍(441대) △제타 2.0 TDI BMT(403대) △520d x드라이브(361대) △S 350 블루텍 4매틱(348대) △골프 2.0 TDI(328대) △C 220 블루텍(326대) △BMW 320d(323대) △벤츠 E 250 블루텍 4매틱(303대) 순으로 판매됐다.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1만8202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1만6712대) 대비 8.9% 증가한 규모다.

올해 누적대수는 7만7171대로 전년 동기(6만1146대) 대비 26.2% 급증하며 성장세를 지속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국내 픽업트럭 시장 위기

현대차 '싼타크루즈' 도 난감

국내 픽업트럭(짐칸 뚜껑이 없는 소형 트럭)시장이 멸종위기에 처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컨셉트 픽업트럭 '싼타크루즈'를 선보여 북미시장 진출 검토를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하지만 자국 시장의 브랜드 입지가 강해 난관이 예상되고 국내 수요도 미미한 수준이라 시장을 돌파할 전략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유일한 픽업트럭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로 올해 1분기 6008대가 판매됐다. 전년 동기에는 6721대, 지난해 4분기에는 7361대를 판매해 감소세를 기록했다. 또 다른 쌍용차 픽업트럭 모델인 엑티언 스포츠와 무쏘 스포츠의 경우 각각 2011년, 2006년 이후 단종돼 중고차 시장에서나 구매할 수 있는 차종이 됐다.

쌍용차 관계자는 "코란도 스포츠는 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소량의 짐을 적재할 목적으로 구매한다"며 "향후 국내 픽업트럭 시장은 축소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자동차 업계들도 국내 픽업트럭 시장이 너무 작아 국내 진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토요타와 닛산 딜러사 관계자는 현재 공식 수입되고 있는 픽업트럭이 없고 본사에서도 수입계획을 밝힌바 없다고 전했다.

도요타 관계자는 "국내 픽업트럭 시장 자체가 너무 작고 도요타 대표 픽업트럭 모델인 타코마도 국내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입 픽업트럭 시장은 소규모 업체들이 직접 수입해 들여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포드 관계자는 "F-150을 직수입해 국내시장에 판매하고 있지만 마니아 층이나 세컨, 써드카로서의 수요에 국한돼있어 지난해에는 중고 신차를 포함해 120대가 판매됐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 1653만대 중 14%에 해당하는 232만대의 픽업트럭이 팔렸다. 미국의 경우 캠핑, 레저문화와 전원생활 가구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다양한 용도로 픽업트럭을 사용할 수 있어 수요가 높다. 또한 미국 시장조사업체 IHS 오토모티브는 미국 픽업트럭 시장이 2017년에는 273만대, 2020년 294만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용기기자 yong@

싼타크루즈

벤츠·BMW·아우디

노키아 지도로 자율주행차 시장 견제

벤츠·BMW·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3사가 중국 IT 회사인 바이두와 손잡고 핀란드 통신업체 노키아의 디지털 위치정보 서비스 'Here(히어)'를 인수하기 위해 뛰고 있다. 10일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3사는 그동안 국내 제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져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았던 차량 네비게이션 기능을 향상하는 동시에 구글의 자율주행차 시장 독점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벤츠·BMW·아우디 등은 히어 매입과 관련해 노키아와 접촉했다. 노키아가 지도 사업부문을 정리하며 히어의 주식 대부분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독일차 3사와의 협상은 조기에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협상이 계획대로 마무리된다면 독일차 3사는 히어의 지분의 과반이상을 확보하게 되며 바이두는 소액주주가 된다.

독일차 3사는 히어를 통해 자량의 네비게이션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독일차 3사 고객은 차량에 내장된 네비게이션의 성능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특히 벤츠는 네비게이션 지도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조작법이 불편해 고가의 차량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벤츠의 S클래스 차량의 네비게이션 /드류브 캡처

그러나 전례 없이 3사가 한 뜻을 모은데는 구글의 자율주행차 시장의 독점을 막겠다는 큰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위치정보 서비스는 자율주행차의 핵심이다. 구글은 올해 초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자체 파트너사를 공개하는 등 상용화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약 구글이 자율주행자용 운영체제를 개발해 무료로 개방하면 자동차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시장이 안드로이드 개방으로 타격을 입은 것과 같이 자동차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독일차 3사는 히어의 인수가를 약 21억 유로(한화 약 2조 5600억원)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양측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 단계에 있어 2주 이내에 협상이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현재 히어는 북미와 유럽에서 지난해 판매된 신차 중 약 1300만대에 네비게이션 시스템으로 탑재돼 있다. 네비게이션 장착 차량의 약 80%가 히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소리기자 1@seoul@

metro entertainment

"대중과 공감대 형성할 거예요"

KBS2 '블러드' 인방 신고식

손수현

배우 손수현(27)은 일본 배우 아오이 유우를 닮아 주목 받았다. 그러나 누군가의 아류로만 존재하기엔 손수현의 연기 열정은 확고했다. 지난 4월 종영된 KBS2 '블러드'를 통해 처음 드라마에 출연했다. 뱀파이어임을 숨기고 사는 민가연 역을 맡아 박지상(안재현)을 향한 풋풋하고 안타까운 외사랑을 표현했다.

"'대본을 보면서 함부로 상상하면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기해야 한다는 점이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도 제가 생각한 것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게 다르면 혼란스럽더라고요. 특히 혼자 대본을 읽을 때는 괜찮았는데 상대방이 대사를 하면 와닿긴 말이 소용 없어질 때도 있어요. 민가연이 뱀파이어인 건 저 역시 나중에 알았죠. 비밀을 간직한 캐릭터라는 설정만 갖고 연기했어요. 제가 대본을 잘 이야기했다."

"악성 댓글을 보면 울적할 때가 있어요. 해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근데 원래 안 좋은 걸 잘 잊어버리는 성격이에요. 편하게 사는 거죠. 대부분의 댓글은 '아오이유우 따라 한다', '유우보다 못 생겼다' 예요. 저 못생긴 거 알아요. (웃음) 외모에 관한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오히려 '연기 못한다'라는 글을 보면 상처 받아요. 우울해진 적은 없지만 '두고 보자! 다음엔 잘 할 거다'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죠."

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한 손수현은 대학에서 아쟁을 전공했다. 소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그룹 빅뱅의 대성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으로 발탁돼 연예 활동을 시작했다.

"세 살 차이 나는 남동생은 '누나가 왜 연예인인지 모르겠다'고 해요. 처음 국악을 시작한 이유는 엄마가 하라고 해서

아쟁 전공… TV나오니 부모님도 흐뭇

아오이 유우 이미지 노력해서 바꿀 것

외모 관련 댓글보다 연기 지적 더 신경

뭣 모른 줄 알았어요."

손수현은 한국의 아오이 유우라는 별명에 대해 "노력해서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전문 모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신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웃음)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피팅 모델을 했을 뿐이죠. 그렇다 보니 온라인에 사진이 많이 있고 아오이 유우라는 굳어진 이미지가 있어요. 연기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외적인 부분으로 변화를 주려고 했어요. 공식석상에서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옷을 소년스럽게 입었죠. 그래도 평가는 똑같더라고요. 외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배웠죠."

악성 댓글에 상처받을 법하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자신의 털털한 성격을 있죠. 그런데 아쟁을 잘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연기는 악기를 다룰 때 음직임을 익히며 배운 적이 있죠. 연예인 활동은 지금 소속사 대표를 만나 자연스럽게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악단에 들어가 공연하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 모두 'TV에 나오니까 좋다'고 말씀하세요."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한 그는 대중과의 공감대 형성을 중시했다.

"신뢰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제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중의 호응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연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품이 공개되는 순간 저만의 것이 아니죠. 대중과 저의 교집합을 계속 고민할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꾸준히 다시할 겁니다. 결론은 박이 딩이에요. (웃음)"

/전효진 기자 jeonh85@metroseoul.co.kr

star bag

신곡 '그림자는 길어지고' 발표

가수 세븐이 신곡 '그림자는 길어지고'를 8일 발표했다. 3년 만이다. '그림자는 길어지고'는 세븐이 주연을 맡은 뮤지컬 '엘리자벳'의 대표곡이다. 뮤지컬 '엘리자벳'은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인물인 황후 엘리자벳의 일생을 그린 작품이다. 6월 13일부터 9월 6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공연된다.

연극 '모범생들' 엘리트 학생 변신

신인 배우 강영석이 연극 '모범생들'에서 엘리트 학생 서민영 역을 맡았다. 평균가에서 철저 교육을 받고 자란 그는 공부·집안 등 모든 면에서 상위 0.3%에 드는 우월한 인물이다. 작품은 특목고 고3 학생들을 통해 비틀어진 한국 교육의 현실과 비인간적인 경쟁 사회의 자화상을 이야기한다. 8월 2일까지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공연된다.

현 소속사와 재계약 '의리'

배우 김래원이 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했다. 이번 재계약은 배우 김래원의 연기자적 역량과 HB엔터테인먼트의 체계적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한 2년의 시간이 겹친 결과다. 김래원은 "안정적인 매니지먼트 지원 속에 연기 하는 데만 집중하며 더 좋은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첫 소설 '파리 빌라' 발간

배우 윤진서가 8일 첫 소설 '파리 빌라(La Villa de Paris)'를 발간했다. 산문집 '비브르 사 비'(2013) 이후 두 번째 작품이다. 소설은 찬란한 사랑의 순간과 그 사랑이 지난 후의 아픔, 여행한 도시에서 마주한 감정, 사랑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는 두 여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아이돌 '혼자라도 괜찮아'

비스트 장현승·시크릿 전효성·인피니트 성규 솔로 앨범
티아라 은정은 이름까지 바꿔 그룹과 다른 색 표방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앞다퉈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있다. 비스트 장현승, 시크릿 전효성, 티아라 함은정 등이 솔로로 나서며 그룹 활동에선 볼 수 없었던 매력을 마음껏 발산중이다.

비스트 장현승은 멤버 양요섭, 용준형에 이어 그룹에선 세 번째로 솔로 앨범 '마이(My)'를 8일 발표했다.

장현승은 앞서 같은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식구인 걸그룹 포미닛의 현아와 트러블메이커라는 혼성 유닛으로도 활약한 바 있다. 당시 현아와 섹시한 무대로 연일 화제를 모으며 차트를 휩쓸었던 장현승은 이번에 '19금 순정남'이라는 콘셉트를 들고 나왔다.

래퍼 기리보이가 피처링에 참여한 타이틀곡 '니가 처음이야' 뮤직비디오에서 장현승은 자세대 섹시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황승언과 호흡을 맞췄다. 두 사람은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면서도 유머감각을 잃지 않아 다소 모순되게 들리는 '19금 순정남'이라는 테마를 잘 풀어냈다.

시크릿 전효성은 섹시 디바 엄정화·이효리의 계보를 잇는다는 각오다.

지난해 굿나잇키스(Good night Kiss)로 솔로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치른 전효성은 첫 미니앨범 '판타지아(FANTASIA)'를 7일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크릿이 귀여운 섹시함을 표방했다면 솔로 전효성은 성숙한 여인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 타이틀곡 '반해'는 데뷔 후 처음 곡에 도전한 그의 음악적 변신도 돋보인다.

지난 7일 진행된 쇼케이스에서 전효성은 "다시 한 번 섹시 코드로 나왔는데 매력적인 콘셉트라 놓지고 싶지 않다"며 "하지만 항상 섹시함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대중이 바라봤을 때 건강하고 파워풀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섹시한 디바가 되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티아라 함은정은 엘시(Elsie)라는 예명으로 케이윌과 호흡을 맞춘 솔로곡 '혼자가 편해졌어'를 발표했다. 애절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발라드 곡으로 댄스곡 위주로 활동했던 티아라 때와 180도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피니트의 리더 성규도 약 3년 만에 두 번째 솔로 앨범으로 컴백했다. 11일 오전 0시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 성규 솔로 2집 '27'은 록밴드 넬의 김종완이 총 프로듀싱을 맡았다. 또 한국인 최초 데프잼(DEF JAM) 소속 작곡가인 스웨이스보이, 에픽하이 타블로 등이 이번 앨범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성규는 더블 타이틀곡 '너여야만 해'와 '끈'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김지민기자 kjmskm@

전효성

장현승

임흥순, 한국작가 최초 '은사자상'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한국작가 임흥순(46)이 9일(현지시간) 제 56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의 국제전 시상식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했다.

임흥순은 아시아 여성의 노동문제를 소재로 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촬영한 75분 분량의 영화 '위로공단'으로 이번 상을 받았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했다. 한국 작가로서 본전시 첫 수상이며 역대 최고상이다.

임 작가는 "40년 넘게 봉제공장에서 시다 생활을 해 오신 어머니의 백화점 의류매장, 냉동식품 매장에서 일해온 여동생의 삶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임 작가는 경원대 회화과 학사·석사를 거쳐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예술상'에서 독립예술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2013년 제주 4·3 사건과 강정마을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비념'을 첫 장편 다큐멘터리로 선보였다.

/정지민기자

전도연 임수정 고준희

극장가에 불어오는 女風

전도연·임수정·고준희 전형성 탈피 변화기대!

최근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으로 초토화된 극장가에서 한 편의 한국영화가 조용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혜수·김고은 두 여배우의 조합으로 관객 마음을 사로잡은 '차이나타운'이 그 주인공이다. 올해 유난히 침체돼 있는 한국영화가 '차이나타운'으로 시작된 '여풍(女風)'으로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충무로 대표 여배우들의 활약을 내세운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오는 28일 개봉하는 '무뢰한'(감독 오승욱)은 전도연이 주연으로 나오는 작품으로 영화계 관심이 높다. 전도연은 '무뢰한'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단란주점 마담으로 변신해 김남길과 호흡을 맞췄다.

하드보일드 멜로를 표방한 영화는 어두운 남성적인 세계 속에서 더욱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그린다. 전도연은 "느와르나 하드보일드라고 하면 남성 중심의 영화가 많은데 '무뢰한'은 그 중심에 사랑에 대한 거친 감정이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작품 선택 이유를 밝혔다.

배우 임수정은 오는 6월 개봉을 앞둔 영화 '은밀한 유혹'으로 3년 만에 스크린에 컴백한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여자와 그런 여자에게 인생을 완벽하게 바꿀 제안을 하는 한 남자의 위험한 거래를 다룬 범죄 멜로 영화다.

임수정은 "대본을 처음 본 순간 반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앞으로의 일이 예측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서스펜스도 강했다. 캐릭터도 매력적이었다"고 출연 이유를 설명했다.

고준희는 오는 6월 개봉 예정인 '나의 절친 악당들'로 첫 주연 배우로서 출사표를 던진다. 임상수 감독의 신작이자 배우 류승범의 2년 만의 복귀작으로 화제인 영화다.

고준희는 세상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는 거침없는 성격으로 렉카차를 운전하는 캐릭터 나미 역을 맡았다. 거칠고 섹시한 매력을 뽐낸 것은 물론 대역 없는 맨몸 액션 연기 투혼까지 발휘했다. 임상수 감독은 "촬영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다. 성장하는 모습이 느껴져 매일 매일이 행복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박보영, 엄지원 주연의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과 엄정화가 주연을 맡은 '미쓰 와이프'가 각각 6월과 7월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전형성에서 탈피한 새로운 여성 캐릭터의 등장이 한국영화에 어떤 신선한 변화를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장병호기자 solarplant@metroseoul.co.kr

남성 중심 첩보영화 공식 깬 전복의 쾌감

film review

/장병호기자

■ 스파이

'007' 시리즈로 대변되는 첩보영화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장르다. 첩보영화가 여성 캐릭터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늘 제한적이었다. 주인공의 조력자가 되거나 주인공을 위기로 몰아넣는 팜므파탈이 되는 것. 두 가지 선택지 외에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이다. '스파이'는 이런 첩보영화의 관습을 산산조각낸다. 세상에 없던 여자 스파이[illegible] 통쾌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영화는 CIA 내근직 요원으로 일하던 소심한 성격의 여자 수잔 쿠퍼(멜리사 맥카시)가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현장 요원으로 투입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주드 로, 제이슨 스타뎀 등이 수잔과 엮이는 CIA 요원으로 호흡을 같이 맞췄다.

통통하다는 이유로 자존감이 없는 수잔에게는 다른 남자 스파이처럼 멋들어진 옷도, 최첨단의 무기도 주어지지 않는다. 호신용 호루라기, 무좀 스프레이, 물티슈처럼 허접한 도구만을 지급받고 [illegible] 어느 스파이 못지않은 활약을 보이며 작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간다. 그동안 감춰왔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은 수잔이 그동안 부족했던 자존감을 되찾아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무척 즐겁다.

기본적으로는 코미디에 방점이 찍힌 영화지만 탄탄한 구성으로 짜임새 있는 이야기가 첩보영화로서의 제 역할도 충분히 해내고 있다. 물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캐릭터의 매력이다. 멜리사 맥카시는 천연덕스러운 연기로 비호감[illegible]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만들어낸다. 자신의 외모를 놀리는 남성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작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수잔의 감춰진 매력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다. 허세로 가득한 요원 릭 포드 역의 제이슨 스타뎀도 기존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웃음보를 터트리게 한다.

15세 이상 관람가. 5월 21일 개봉. /장병호기자

손흥민 18호골 사냥 또 실패

손세이셔널' 손흥민(23 레버쿠젠)이 시즌 18호 골 사냥에 또 실패했다

손흥민은 9일(현지시간) 독일 보루시아 파크에서 열린 2014-2015 분데스리가 32라운드 묀헨글라드바흐와의 원정경기에서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 활약했지만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4경기째 무득점이다

손흥민은 좀처럼 슈팅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전반 38분 키슬링의 헤딩 패스를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회심의 논스톱 슈팅을 시도했다 볼은 묀헨글라드바흐 골대 오른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도했으나 골키퍼의 손끝에 막혀 아깝게 골문 밖으로 벗어났다 레버쿠젠은 후반 내리 세 골을 내주며 0-3으로 완패했다

이날 패배로 정규리그 두 경기를 남겨 놓은 4위 레버쿠젠은 3위 묀헨글라드바흐와 승점이 5로 벌어지며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직행권(1~3위) 확보가 쉽지 않게 됐다

손흥민이 9일(현지시간) 독일 보루시아 파크에서 열린 2014-2015 분데스리가 32라운드 묀헨글라드바흐와의 원정경기에서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드리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평점5로 팀내 최하 · 이청용 후반 교체출전

경기 후 독일 언론 빌트는 손흥민에게 칼하노글루 힐버트 벤더 등과 함께 팀 내 최저 평점인 5점을 부여했다 빌트지 평점은 1~6점이며 낮을 수록 좋다

한편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수 홍정호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32분 옐로카드를 받았지만 풀타임을 뛰며 팀의 1-0 승리를 지켜냈다 공격수 지동원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구자철이 후반 교체 출전한 마인츠는 슈투트가르트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에만 두 골을 내주며 0-2로 졌했다 박주호는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39분 교체출전해 10여 분간 활약했다 팀은 1-2로 졌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메시·호날두 나란히 무득점

바르셀로나 1승만 추가하면 프리메라리가 우승

스페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나란히 득점 사냥에 실패했다

바르셀로나는 10일(한국시간) 스페인 캄프누에서 열린 2014-2015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36라운드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홈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메시는 이날 득점은 실패됐지만 두 골 모두 에시스트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후반 5분 메시가 소시에다드 페널티지역 구석에서 골문 쪽으로 크로스한 볼이 수비수의 머리를 스치며 흘렀고, 이를 디 아마르기 뛰어들며 헤딩골로 연결시켰다 후반 40분에는 페널티박스 안에서 메시가 패스한 볼이 수비수 몸을 맞고 튀어오르자 페드로가 오버헤드킥으로 추가 골을 성공시켰다

레알 마드리드는 발렌시아와의 홈경기에서 2-2로 비겼다 0-2로 뒤지던 후반 11분 페페가 만회골을 터뜨린 데 이어 39분 이스코가 동점골을 작렬시켰지만 역전에는 실패했다

메시와 호날두

호날두는 전반 종료 직전 가레스 베일이 얻은 페널티킥의 키커로 나섰지만 실축했다 다만 리그 42호골을 기록 중인 호날두는 이날 메시(40호골) 역시 득점 사냥에 실패하며 득점 부문 선두는 유지했다

바르셀로나는 승점 3을 추가해 승점 90을 기록했다 레알 마드리드(승점 86)가 승점 1점을 얻는 데 그쳐 바르셀로나는 남은 두 경기 가운데 1승만 보태면 리그 우승을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정은경기자

강정호 5번째 멀티히트

수비선 트리플플레이 진기록 – 추신수 9경기 연속 안타

강정호(28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며 시즌 5번째 멀티히트를 작성했다

강정호는 10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홈경기에 6번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 2득점을 기록했다.

7일 신시내티 레즈전에 시작한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다 시즌 타율은 0.300에서 0.318(44타수 14안타)로 올랐다

특히 수비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펼쳤다 0-0이던 2회초 무사 2, 3루에서 2루수 닐 워커와 호흡을 맞춰 트리플 플레이를 기록했다

야디에르 몰리나의 강한 직선타를 뛰어오르며 잡아낸 워커는 2루주자가 3루 쪽으로 많이 이동한 걸 파악하고, 3루로 인직 공을 던졌다 3루수 강정호는 워커의 송구를 받고 3루를 밟아 조니 페랄다를 아웃 처리했다

이어 2루로 공을 던져 귀루하지 못한 제이슨 헤이워드를 아웃 처리했다 2루수-3루수-2루수로 이어진 트리플 플레이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 나온 진기록이다 피츠버그는 7-5로 승리했다

한편 추신수(33 텍사스 레인저스)는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원정경기에 1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1안타 1볼넷으로 9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시즌 타율은 0.165에서 0.169(89타수 15안타)로 조금 올랐다 텍사스는 템파베이에 2-7로 무릎을 꿇어 2연패를 당했다

강정호

추신수

/김민준기자

이대호 4경기 연속 홈런포

시즌 10호 퍼시픽리그 공동 1위

5월 들어 펄펄 날고 있는 빅보이 이대호(33 소프트뱅크 호크스 사진)가 4경기 연속 홈런포를 날렸다

이대호는 10일 일본 후쿠오카 야후오크돔에서 열린 라쿠텐 골든이글스와 홈경기에 5번 지명타자로 나와 3-0으로 앞서던 4회말 좌월 3점 홈런을 터뜨렸다 1사 1, 2루에서 라쿠텐 선발투수 도무라 겐지의 시속 136㎞짜리 커터 초구가 가운데로 들어오자 그대로 받아쳐 아치를 그렸다

최근 4경기 연속 홈런이자 시즌 10호로 퍼시픽리그 홈런레이스에서 이날 홈런을 더하지 못한 나카타 쇼(10홈런 니혼햄)와 공동 1위로 올라섰다

이대호는 1회말 첫 타석에서 우익수앞 안타를 치고 10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이어 3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같은 방면 안타를 추가했다 5회말 네 번째 타석에서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고 7회말에는 2사 2루에서는 중견수 뜬공으로 쉬어갔다

이날 3점 홈런을 포함해 4타수 3안타 3타점 2득점의 맹활약을 펼친 이대호의 타율은 0.281에서 0.295(132타수 39안타)로 올랐다 소프트뱅크는 10-1로 승리했다 /정은경기자

전인지 JLPGA 메이저대회 살롱파스컵 우승

이보미 상금순위 1위 도약

전인지(21 하이트진로)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4대 메이저대회 가운데 하나인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스컵(총상금 1억2000만엔) 우승을 차지했다

전인지는 10일 일본 이바라키현 이바라키 골프클럽 동코스(파72·655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의 성적을 낸 전인지는 우에다 모모코(일본)를 4타 차로 넉넉히 따돌렸다

JLPGA 투어 사상 최초로 투어 첫 출전에 메이저를 제패하는 기록을 세운 전인지는 우승 상금 2400만엔(약 2억1000만원)을 받았다

이보미(27)가 4언더파 284타로 3위에 오르며 시즌 상금 4557만 엔으로 상금 부문 1위가 됐다 또 올해의 선수(198점)와 평균 타수(70.79타) 부문에서도 모두 1위에 올랐다 /이번준기자

"가격없는 물건도 훔치거나 뺏으면 당연히 범죄"

법원 "무료지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 등 성립"

"무료지는 공짜로 가져가라고 내놓은 거 아니냐? 그걸 좀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왜 죄가 되느냐?"

지난달 8일 발생한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의 메트로신문 강탈사건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항변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형법상 강도죄나 절도죄에서 문제되는 재물은 해당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재화로서의 효용성과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 즉 소유주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사용한 경우 형적 처벌이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무료 제공이지만 생산 비용이 전제된 만큼 재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직장인 이모(40·경기도 부천시)씨는 2009년 1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원미1동사무소 내에 설치된 신문가판대에서 부천신문 25부를 한꺼번에 가져가다 절도죄로 고소당했다.

당시 대법원은 "비록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이지만 피해자가 광고 수익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를 발행하며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직접적 관리를 하고 있는 점에서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관련 문서 사본을 반납하지 않아 절도죄가 적용된 사례도 있다.

1996년 9월 당시 대법원은 "위 서류들이 비록 이미 공개된 기술내용에 관한 것이며 외국회사에서 선전용으로 우표로 배부해 줬다 해도 회사의 소유권 대상으로 판단할 경제적 가치가 있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단순)절도죄에 해당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한편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창동 지하철4호선 회현역 7번 출구 근처에서 신세계 그룹 직원 2명이 메트로신문 배포도우미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신문을 강제로 빼앗고 또 다른 신세계 직원은 배포대에 놓여있던 신문지 40여부를 탈취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세계 이마트 측은 사건 직후인 9일 <화이트 페이퍼>를 통해 "정용진 부회장의 사진이 1면에 게재돼 있기에 윗선에 보고하기 위해 10여부 를 가져간 것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메트로 신문은 신문을 탈취하고 달아난 신세계 직원 2명을 상대로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강도죄,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수강도죄 형법 제334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성재(법무법인 정고) 변호사는 "무료지라 하더라도 편집·발행을 위해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문사의 재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 "2인 이상이 배포 도우미를 상대로 강제로 빼앗고 사건 외중 폭행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단순 재물죄가 아닌 특수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illegible]

검찰, 成측근 조사… 이완구 소환 가능성

선거당시 재구성해 돈 전달 시기·방법 재확인 나서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화살을 겨누고 있다. 洪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성 전 회장의 측근을 조사하자 이 전 총리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10일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3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를 재구성하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때 동행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 운전기사 여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4월 2일 오후 ■ 일닉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연합뉴스

또 당시 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봤다고 밝힌 캠프 자원봉사지 한모씨도 재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이 캠프를 방문한 정확한 시기와 돈 전달 방식 등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금품 수수가 4월 4일로 지목됐으나 다른 날일 수도 있다는 진술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당시 이 총리의 비서관이었던 김모씨 등을 소환 대상에 올려놓고 이들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 전 총리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1억 수수 혐의를 받는 홍 지사의 당사 비서관인 신모씨를 불러 홍 지사가 한 진술의 진위를 확인키로 했다. 홍 지사는 8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17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홍 지사가 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 인멸 혐의 적용이 가능할 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금품 수수와 회유 등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연미란기자 [illegible]

합수단 '기무사 군무원' 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에게 군사 기밀 100여건을 유출한 기무사 소속 군무원이 구속됐다.

10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군사기밀을 빼내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 측에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사 II·III급 비밀 자료를 비롯해 장성급 인사들의 신원정보와 각종 무기체계 획득 사업 정보, 국방부 방사청 내부 동정 보고서 등 군형법 상 군사상 기밀 자료 110여건을 포함한 140여건의 기무사 내부 자료를 이 회장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사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변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일광공영에 대한 기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회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방위사업 비리로 구속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숙거 높은 각종 사업 관련 비밀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연합뉴스

수집해주면 사례하겠다는 이 회장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는 기무사 내부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 1회당 50만원씩 모두 20회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3월31일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수기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101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연미란기자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통지 안하면 위법

재판절차문제로 사건 되돌려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0월 자신의 체크카드에서 2500만원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특수절도와 장물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건들이 모두 병합돼 심리를 했고 징역1년6월에 처해졌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씨에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고도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씨가 직접 작성한 항소이유서 등은 제출됐지만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줘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했어야 한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미란기자

"간큰 약사·· 같은 처방전으로 2500회 대체 조제"

무려 2년 넘게 처방전 하나로 2500회 저하나 대체조제한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10일 의사 처방전과 같은 의약품을 대체 조제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 송모(68)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0년 12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시 약국에서 처방약을 만들 때 의사가 적어준 회사의 약품 대신 성분이나 효능이 같은 다른 회사의 약품을 조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려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인재 판사는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데다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지만 대체 조제한 약품이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과 성분·효능 등에서 같은 제품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희선기자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을 깨어난다
처음처럼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100%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